

중국 리오프닝이 인천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23. 4



INCHEO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ontents

■ SECTION 1.		
조사 개요	1	
■ SECTION 2.		
1. 인천지역 수출 동향	2	<표 목차> <표1> 2022년 인천의 국가별 수출 동향 2 <표2> 2022년 광역시별 대중국 수출 동향 3
2. 중국 리오프닝 관련 조사결과	5	<그림 목차> <그림1> 인천의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4 <그림2> 중국 리오프닝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그림3> 중국 리오프닝이 기업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 5
3. 결론 및 시사점	8	<그림3-1> 중국 리오프닝의 긍정적 기대효과 6 <그림3-2> 중국 리오프닝의 부정적 기대효과 6 <그림4> 코로나19 이후 대중국 사업 계획 7 <그림5> 중국 리오프닝을 기회로 활용 위한 필요 과제 7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3. 2. 22 ~ 3. 3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및 팩스 조사
- 응답기업 : 인천지역 소재 제조업체 150개사
- 응답항목 : 6가지 문항
 - 중국 리오프닝이 한국경제·기업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2개 문항)
 -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효과(2개 문항)
 - 향후 대중국사업 계획 및 중국 리오프닝 기회 활용 방안(2개 문항)

인천지역 수출 동향

- 2022년 인천의 전체 수출금액은 542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대중국 수출금액은 176억 200만 달러로 전체 금액의 3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인천의 중국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23.6% 증가하였으며, 이는 93억 5,90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높은 수출금액을 기록한 ‘미국’(17.2%)과도 큰 격차를 보임.

<표 1> 2022년 인천의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누계

국가명	2021년	2022년		비중	무역수지
	수출금액(A)	수출금액(B)	증감률(B/A)		
총계	45,948	54,270	18.1	-	-14,026
중국	14,244	17,602	23.6	32.4	8,483
미국	7,763	9,359	20.6	17.2	1,387
베트남	3,757	4,196	11.7	7.7	3,005
대만	2,092	1,950	-6.8%	3.6	-5,525
일본	1,934	1,707	-11.7	3.1	-3,124
싱가포르	1,182	1,682	42.3	3.1	434
홍콩	1,500	1,321	-11.9	2.4	1,040
인도	905	1,131	25.0	2.1	585
튀르키예	810	1,126	39.1	2.1	653
필리핀	715	1,027	43.6	1.9	769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2022년 광역시별 대중국 수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인천은 32.4%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22.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금액으로 비교할 경우, 인천의 대중국 수출금액은 176억 200만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울산의 대중국 수출금액인 87억 7,800만 달러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인천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타 지역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 2022년 광역시별 대중국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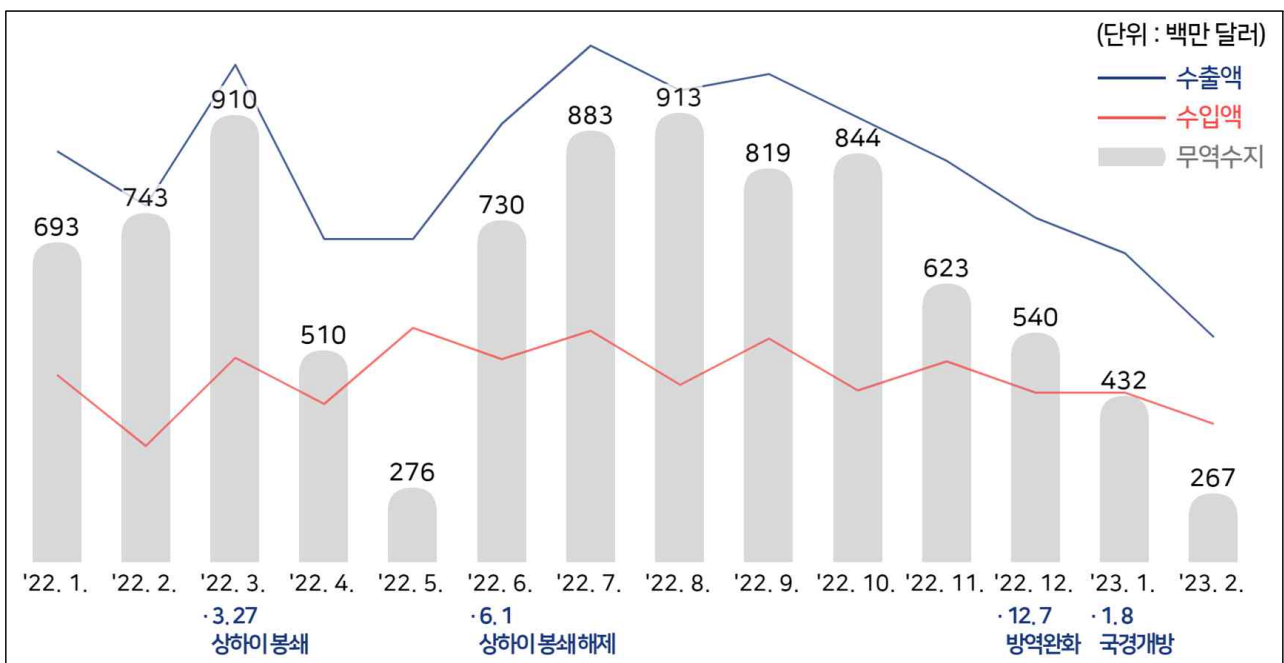
국가명	2022년		비중(B/A)
	전체 수출금액(A)	중국 수출금액(B)	
인천	54,270	17,602	32.4
전국	683,585	155,789	22.8
대구	10,641	3,712	34.9
대전	4,684	1,283	27.4
부산	16,190	2,185	13.5
울산	90,093	8,778	9.7
광주	17,946	956	5.3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2022년 1월 이후 인천의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함. 단, 2022년 3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어진 상하이 봉쇄 시기에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어들어 중국의 정책에 일부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였음.
-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무역수지가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중국 내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2023년 1월 국경개방 등의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리오프닝 :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현상

<그림 1> 인천의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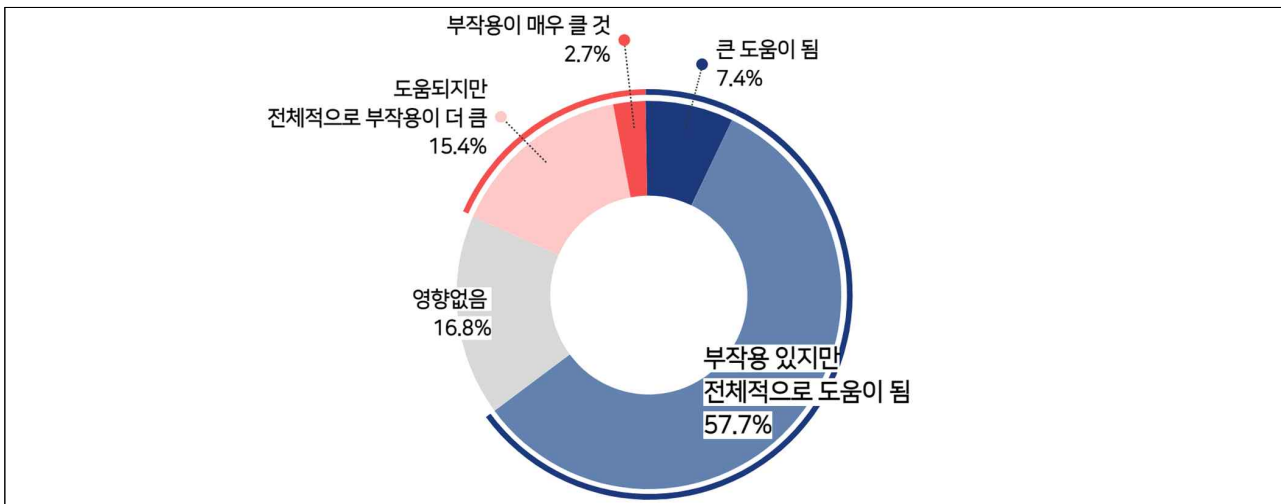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 리오프닝 관련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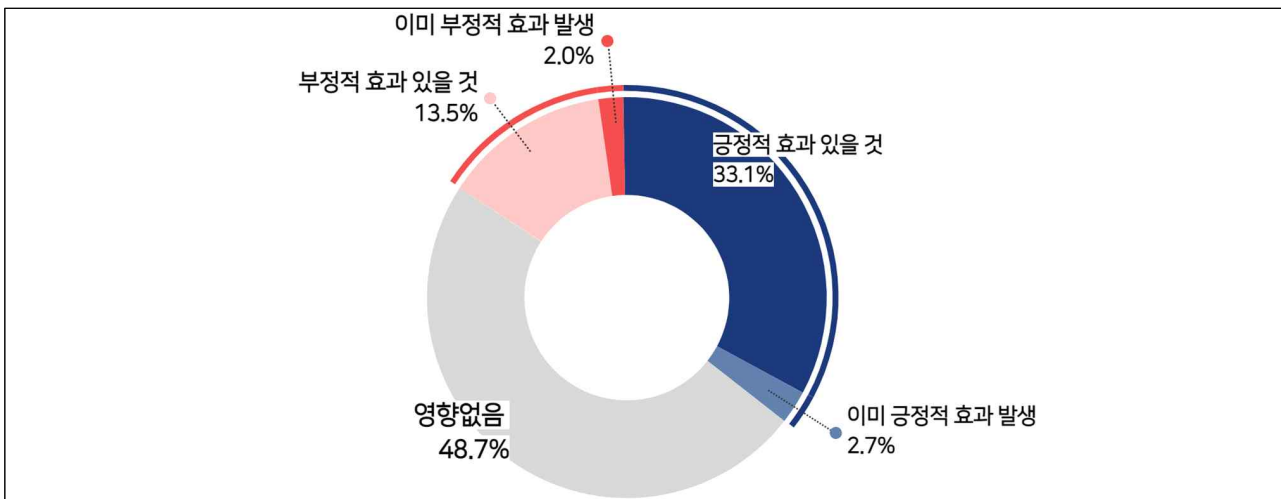
- 인천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리오프닝이 인천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중국의 리오프닝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65.1%(‘큰 도움이 됨’(7.4%), ‘부작용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됨’(57.7%))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의견은 18.1%(‘도움되지만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더 큼’(15.4%), ‘부작용이 매우 클 것’(2.7%))로 조사됨. 중국 리오프닝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6.8%로 나타남.

<그림 2> 중국 리오프닝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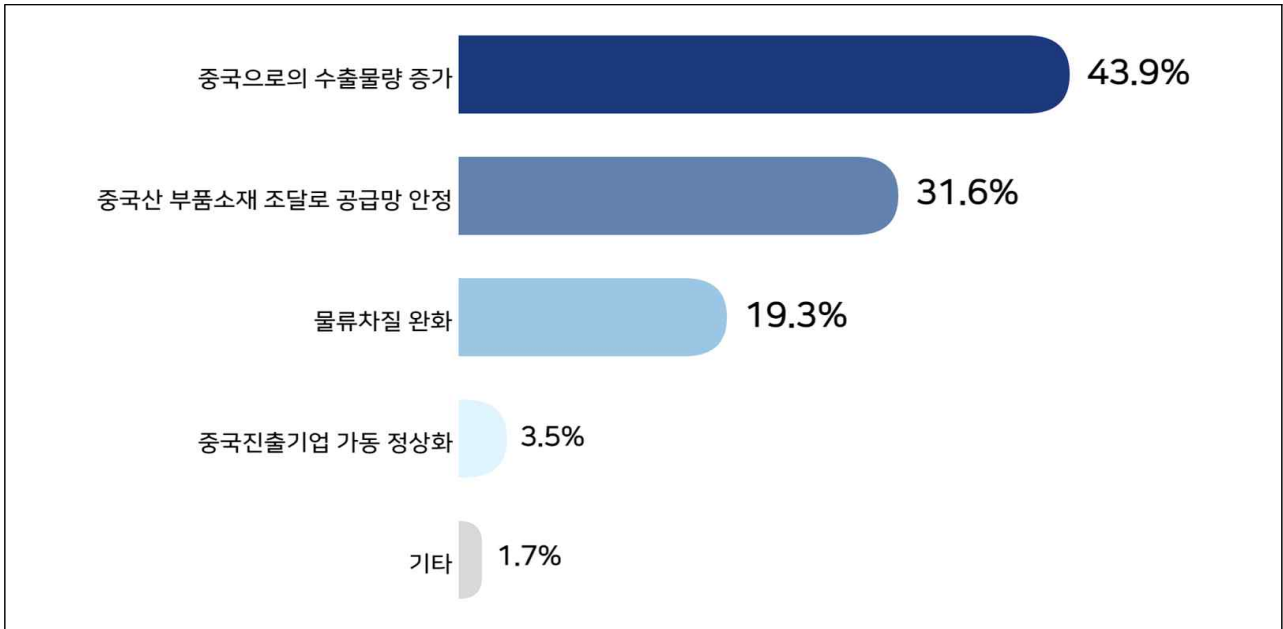
- 중국의 리오프닝이 기업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없음’ 의견이 48.7%로 가장 높았음. 한편, 중국 리오프닝이 기업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5.8%(‘긍정적 효과 있을 것’(33.1%), ‘이미 긍정적 효과 있을 것’(2.7%))로 조사되었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15.5%(‘부정적 효과 있을 것’(13.5%), ‘이미 부정적 효과 발생’(2.0%))로 나타남.

<그림 3> 중국 리오프닝이 기업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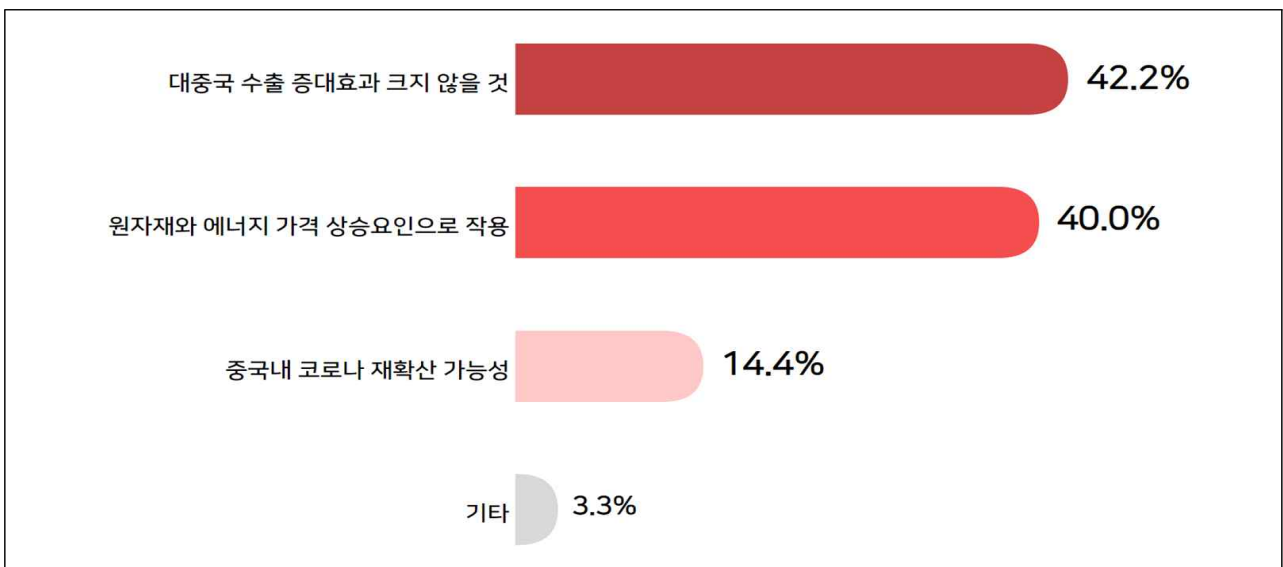
- 중국의 리오프닝이 기업 경영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응답한 기업(35.8%)은 ‘중국으로의 수출물량 증가’(43.9%)를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중국산 부품소재 조달로 공급망 안정’(31.6%), ‘물류차질 완화’(19.3%), ‘중국진출기업 가동 정상화’(3.5%), 기타(1.7%)순으로 나타남.

<그림 3-1> 중국 리오프닝의 긍정적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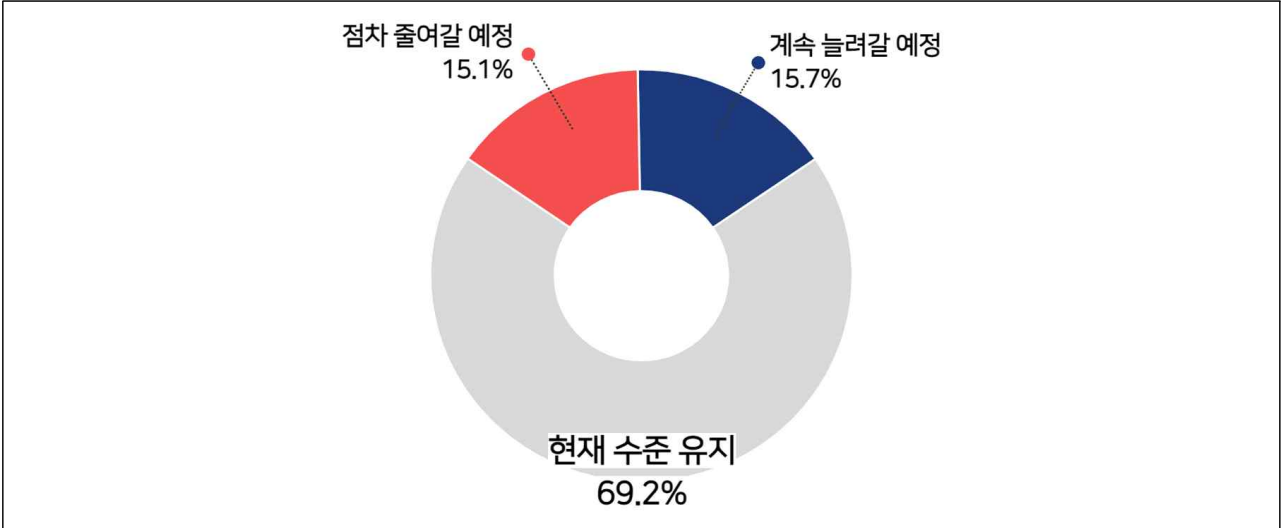
- 반면, 중국 리오프닝이 기업 경영실적에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기업(64.2%)의 경우, ‘대중국 수출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42.2%),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40.0%), ‘중국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14.4%), 기타(3.3%) 순으로 조사됨.

<그림 3-2> 중국 리오프닝의 부정적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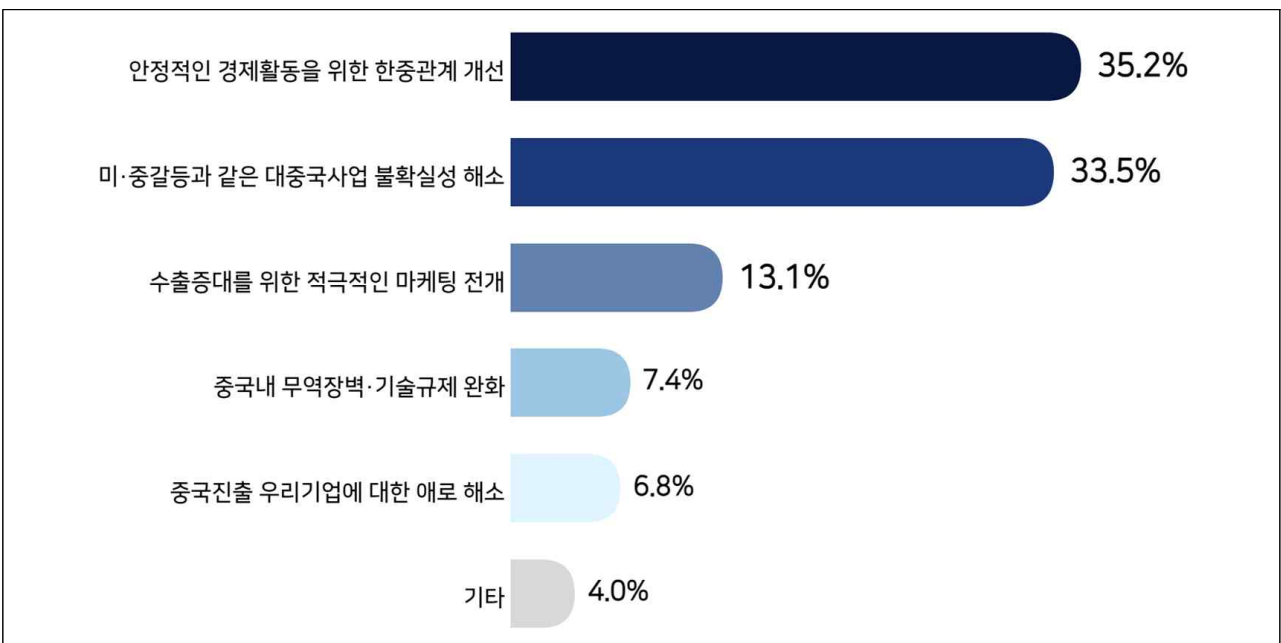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영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향후 대중국 사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9.2%로 가장 많았음. ‘계속 늘려갈 예정’(15.7%), ‘점차 줄여갈 예정’(15.1%)는 각각 비슷한 수치로 나타남.

<그림 4> 코로나19 이후 대중국 사업 계획



-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중관계 개선’(35.2%), ‘미·중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33.3%)로 나타남. 뒤를 이어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13.1%), ‘중국내 무역장벽·기술규제 완화’(7.4%), ‘중국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6.8%), 기타(4.0%)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중국 리오프닝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



결론 및 시사점

-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엄격한 방역 통제를 위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으나, 2022년 12월에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2023년 1월에는 국경 봉쇄를 해제하는 등 통제 수준을 완화함.
- 인천의 주요 수출국 중, 중국은 3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국 평균 중국 수출 비중(2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천의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중국 리오프닝 관련 영향을 파악하고자 조사 실시하였음.
- 인천지역 소재 제조업체 15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리오프닝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5.1%(‘큰 도움이 됨’(7.4%), ‘부작용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됨’(57.7%))로 나타났고,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8.1%(‘도움되지만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더 큼’(15.4%), ‘부작용이 매우 클 것’(2.7%))로 조사됨. 중국 리오프닝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6.8%로 나타났음.
- 반면, 중국 리오프닝이 기업의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에는 ‘영향없음’ 응답이 48.7%로 가장 많았음. 중국의 리오프닝이 기업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35.8%(‘긍정적 효과 있을 것’(33.1%), ‘이미 긍정적 효과 있을 것’(2.7%))로 조사되었으며,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5.5%(‘부정적 효과 있을 것’(13.5%), ‘이미 부정적 효과 발생’(2.0%))로 나타남.
- 중국 리오프닝이 기업 경영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의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물량 증가’(43.9%)를 가장 많이 기대하였으며, ‘중국산 부품소재 조달로 공급망 안정’(31.6%), ‘물류차질 완화’(19.3%), ‘중국진출기업 가동 정상화’(3.5%), 기타(1.7%) 의견도 조사되었음.
- 반면, 중국 리오프닝이 기업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대중국 수출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42.2%)으로 답하였으며,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40.0%), ‘중국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14.4%), 기타(3.3%) 순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사업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대중국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수준으로 유지’ 하겠다는 의견이 69.2%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음. 한편, 향후 대중국 사업을 ‘계속 늘려갈 예정’(15.7%)이거나 ‘점차 줄여갈 예정’(15.1%)인 응답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로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중관계 개선’(35.2%), ‘미·중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33.3%)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다른 응답으로는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13.1%), ‘중국내 무역장벽·기술규제 완화’(7.4%), ‘중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6.8%), 기타(4.0%) 순으로 조사됨.
- 중국의 리오프닝이 진행되면서 중국으로의 수출물량 증가와 같은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장 경쟁이 과열되어 실제 수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증가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미·중 갈등과 같은 정치·대외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어 기업의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지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중국 진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과 동시에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규격인증 등의 판로 확대 지원책을 실시함으로써 중국 리오프닝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삼고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어야 할 것으로 보임.